

현대오일뱅크, BTX 합작기업 설립

일본 Cosmo Oil과 50대50으로 ... 현대중공업 반대 소문은 사실무근

현대오일뱅크가 일본 정유기업 Cosmo Oil과 합작으로 대산에 BTX 신규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해 합작기업을 설립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11월24일 주주총회를 열고 Cosmo Oil과 50대50으로 BTX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 최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투자기업 IPIC가 Cosmo Oil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합작기업 설립에 관한 안건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BTX 플랜트는 Cosmo Oil이 6억달러를 투자하고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부지 등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되찾으려는 현대중공업이 BTX 합작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현대오일뱅크가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현대중공업이 반대해 소송을 낼 것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국제중재법원에서 승소해 IPIC에 넘어갔던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되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23>